

젊음을 품다... 미래를 키우다...

고창군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이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주거, 일자리, 문화, 참여 등 전방위적인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청년친화도시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군의 슬기로운 청년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청년이 살고 싶은 고창, '청년친화도시' 고창 조성 본격화

고창군이 지역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고창군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주거, 일자리, 참여, 문화 등 4대 분야의 25여 개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 주도의 기획과 실행,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정책 모델이 돋보이는 가운데, '사람 중심 청년친화도시 고창'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청년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사업비 5억 원이 지원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기대된다.

▲청년과 함께 설계한 정책... 2025년 청년친화도시 지정 도전

고창군은 2025년 청년친화도시 공식 지정을 목표로 조례 정비와 제도 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정비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청년친화도시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특히 각 분야 부서장이 함께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단'을 통해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주거, 일자리, 창업, 문화... 청년 삶을 담은 정책 추진

△주거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청년창업농 보금자리 조성사업

고창군은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주택, 미활용주택을 매입·리모델링 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정책협의체 위촉

주거·일자리·참여·문화 등
4대 분야 25여개 정책 통합 추진

올해 청년친화도시 공식 지정 목표
조례 정비·제도 기반 강화에 박차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구조가 핵심



청년벤처스 소셜다이닝 행사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사업과 연계해 2025년까지 10~15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혼부부·청년창업농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쇠퇴한 터미널을 청년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터미널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약 2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 기업과 청년이 함께 웃는 구조
고창군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법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

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청년취업지원으로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7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청년 인센티브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장기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창업 - 청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청년의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고 창업 생애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패키지



청년군수 위촉



스마트팜 기공식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1년 차에는 시제품 제작, 초기 사업과 비용 1,500만원, 2년 차에는 마케팅, 임차료 등 정착 기반 조성 자금 3,5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고창군은 청년농 유치와 농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청년농업인의 도전을 응원하고 청년이 귀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청년창업농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간 - 청년1번가, 청년마을 만들기, 청년



고창군 성과공유회

창업과 문화의 중심지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년1번가'는 고창군 청년 창업의 출발점이자 대표적인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2024년도 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청년있다' (고창을 모양삼 마을)와 연계해 로컬벤처, 문화기획 등 다양한 정책이 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고수면 원더청년단체에서 전통 용기, 씨간장 등 고창 용기를 활용한 장 담그기 체험과 씨유산 헤리티지(씨간장 발효 과정), 숲마루 헤리티지(숲속놀이터에서 자연체험), 족보 헤리티지(가족과 공동체 유산기록)의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이다.

▲청년이 정책을 만든다... 아이디어 공모와 소통 간담회

고창군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고 설계하는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청년포털 앱을 통해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청년 소통간담회'에서는 청년의 삶과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청취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은 부서 간 공유를 통해 2026년 청년정책 실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 구조 확립

고창군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하는 정책구조다. 청년정책위원회는 각종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1번가 등 거점공간은 창업·문화·네트워크 중심의 청년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정책 점검과 개선을 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이 지역에 머무를 이유를 만들고, 스스로 기회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창군의 역할"이라며, "청년정책을 고창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삼아, 누구나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아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